

국군 발전과정에 대한 분석·평가

金 江 寧

(조화정치연구원장)

1. 서 론
2. 국군의 발전과정
3. 한국군의 역할과 향후과제
4. 결 론

1. 서 론

영국의 역사학자 에드워드 헬릿 카(Edward Hallet Carr)는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이다”(History is a dialogue between past and present)¹⁾라고 말한 바 있고, 정치학자 해롤드 J. 라스키(Harold J. Laski)도 “현재는 과거의 자식이며 우리들은 미래의 아버지이다”²⁾라고 하여

1) Edward Hallet Carr, *The New Society* (London: Macmillian & Co., Lt, 1960), p. 10; Edward Hallet Carr, *What is History* (Penguin Books, Ltd., 1964), p. 30.

2) Harold J. Laski, *The Danger of Being a Gentleman*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1939), p. 37.

역사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역사학자 토인비(Arnold J. Toynbee)는 “도전에 대한 응전”으로 역사를 이해하고 있다.³⁾ 과거 없는 현재가 있을 수 없고, 현재 없는 미래가 있을 수 없음을 뜻하는 인과율(因果律)을 모두 함축하고 있는 말이다.

원래 현재는 그 어떠한 사소한 부분이라도 과거로부터 연속되고 있으며, 과거에 그 원인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인간의 생활과 앞으로의 가능성은 과거에 의해서 규명되며 제약되는 것이 적지 않다. 따라서 현재의 올바른 진단과 미래의 조망 및 대비를 위해서는 과거를 알아야 한다. 즉 어떠한 사정에서 현대의 군사제도가 발생했으며, 어떠한 경로를 따라서 발전되어 왔는가를 아는 일은 현재를 이해함에 있어서 불가결하다. 뿐만 아니라 현대의 제도가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으며, 또한 개선될 수 있는가의 가능성의 한계를 앞에 있어서 불가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고대로부터 국가와 국가 사이에는 전쟁이 있어 왔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항상 의리나 우호관계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갖가지 이해관계와 충돌에 의하여 불시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위태세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나라는 쉽게 정복당하여 결국 멸망하고 만다.⁴⁾ 국방에 철저하여 외적을 물리쳤던 국가는 생존권을 보호하여 번영을 누렸지만, 국방을 소홀히 하여 외침을 이겨내지 못한 국가는 멸망했다.⁵⁾ 우리나라는 기원전 57년부터 1910년까지 930여회 외침에 의한 수난을 겪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있다.⁶⁾ 우리는 1910년 한일합병으로 나라 없는 설움의 고통도 겪어야

3) 토인비의 견해에 대해서는 D. C. Somervell, *A Study of Histor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57) 참조.

4) 정신문화연구원, 『나라와 그 주인』, 1983, p. 225.

5) 국방부, 『국군정훈교정』, 1977, p. 301.

6) 미국의 사회학자 소로킨(Pitilim Alexandrovich Sorokin, 1889-1968)은 『세계전쟁연구』에서 러시아는 1000년의 역사 중 25년만 완전한 평화를 유지했으며, 영국 역시 100년을 기준으로 56년간 전쟁을 치렀다고 분석했다. 국방부 정훈공보관실, “기본정훈교육: 제13과 국가안보와 군의 역할”, 『국방일보』, 2002년 3월 29일자, 4면.

만 했다. 당시 그동안 우리 조상들이 이룩해 놓은 빛나는 전통과 문화창달에도 불구하고 변변히 싸움 한번 해보지 못한 채 일제에 나라를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게 된 것은 국가생존을 위한 ‘국가방위체제’가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해방이후 우리는 건국과 함께 국가를 지키는 군대를 갖게됨으로써 국가다운 면모를 지니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개인이든 국가든 사람으로 이루어진 조직의 목표는 ‘생존과 번영’(Survival and Prosperity)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이를 개인의 기준으로 볼 때 생존은 건강이고, 번영은 사람답게 사는 것, 즉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며, 국가를 기준으로 본다면 생존은 국가방위(國家防衛)이고, 번영은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삶의 질 향상이다. 번영이 없는 생존은 비참하다. 하지만 생존이 없는 번영은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 “생존이 보장되지 않던 국가가 번영했다”는 역사는 동서고금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인간은 집단을 이루고 살면서부터 어느 사회에서나 그 집단의 방위와 질서유지를 위한 수단을 필요로 하며 이러한 필요에 따라 비록 시대와 지역에 따라 제도나 형태는 차이가 있지만, “조직화된 폭력을 합법적으로 수용하면서 그 사회의 군사적 안전을 책임지는 조직체”⁷⁾로서 군대를 필요로 하게 되었고, 이것이 인간의 큰 집단인 국가의 생존, 그리고 더 나아가 번영과 운명을 좌우하는 주요 변수로서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 세계는 냉전의 시대로부터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인종·종교·민족·자원·영토·대량살상무기와 테러문제 등으로 인하여 갈등과 분쟁은 빈발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안보환경 역시 불확실성과 유동성이 지속되고 있다. 주변4국은 각기 양자적 협력 및 동반자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내면적으로는 다양한 갈등관계 속에 실리차원의 안보전략을 추구하고 있으며, 미래 자국의 이익 보호를 위해 나름대로 군사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다.

7) Kurt Lang, “Military,”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Social Science*, Vol. 10(New York: Macmillian Co., 1980), p. 305.

만물은 변화를 거듭해 나가며, 시간의 흐름 속에서 현재는 항상 과거에 빛을 지고 있다. 과거는 현재를 잉태하는 씨알이요 미래 또한 과거로 돌아갈 현재의 열매 위에서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군이 창설되어 오늘의 발전된 모습으로 도약하기까지 조국과 평화의 수호와 군 발전을 위해 노력한 국군의 과거를 잊고서 우리 국군의 현재를 이야기 할 수 없을 것이다. 건국과 함께 호국의 동량으로 출발했던 우리 군의 현재 모습 또한 지난 국방사의 발자취와 무관하지 않은 까닭이다.⁸⁾

우리 국군이 창설된 지 반세기가 지났다. 반세기를 거치는 동안 우리 군은 주변정세의 변화와 전란 속에서 너무도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일을 해냈고 발전을 거듭해왔다. 그러나 국가방위란 상대적인 것이어서 주변국의 정세변화와 군사혁신노력에 대한 부단한 대응노력이 요구되는 바, 자주적인 선진국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더욱 더 철저한 대비태세와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한국군은 어떤 발전단계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고 한국군이 기여해 온 역할과 향후 발전과제는 무엇인지를 분석·평가해 보기 위한 것이다.

2. 국군의 발전과정

1907년 대한제국의 군대가 일본의 강압에 의해 해산된 이후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을 위해 최초로 무력투쟁을 전개하기 시작한 군대는 의병(義兵)이었으며, 그 뒤를 이어 독립군이 이어받았고 독립군의 후신인 광복군(光復軍)이 망명정부 휘하에서 조국의 광복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처럼 우리 군의 역사적 명맥은 구한국군(舊韓國軍)으로부터 의병 → 독립군 → 광복군으로 이어져 왔으며 조국 광복과 새로운 정부수립의 계기를 맞아 정통

8) 백기인, “한국현대국방사의 역사적 의미(상)”, 『국방일보』, 2001년 8월 1일, 4면.

성을 이어받아 다시 태어나서 오늘의 국군으로 우뚝 서게 된 것이다.⁹⁾

오늘의 막강국군(莫强國軍)으로 성장하기까지 우리 군의 발전단계를 민병천 교수는 창군기 → 전시확장기 → 정비기 → 성숙기의 4단계로¹⁰⁾ 그리고 김행복 박사는 건군기 → 한국전쟁기 → 국방체제정비기 → 자주국방지향기 → 자주국방과 세계화를 지향한 국방태세발전기로¹¹⁾ 이선호 박사는 건군기(1945~1950) → 시련기(1950~1953) → 체제정비기(1953~1973) → 자주국방지향기(1973~1993) → 자주국방성취기(1993~현재)로¹²⁾ 각각 구분하고 있다.¹³⁾ 군의 발전과정은, 국방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¹⁴⁾ 다음과 같이 5단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 제1단계: 건군기(1945~1950)

제1단계 건군기는 국방기구가 제도적으로 수립된 시기로서 1940년대가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건군 50년을 맞아 간행한 특집 『건군 50년사』에서는 시기구분에 있어서 1945~1950년을 건군기라고 확정하고 있다.¹⁵⁾ 건군은 독립된 주권국가로서 군대창설을 의미하므로 대한민국 국군

-
- 9) 김행복, “광복 제52주년과 국군의 정통성”, 『국방저널』, 1997년 8월호, 통권 제284호(국방부, 1997. 8. 1), p. 18.
- 10) 민병천, “궁지를 가지고 미래를 열자”, 『육군』, 제232호, 1997년 11·12월호(육군본부, 1997. 11. 24), pp. 14-15.
- 11) 김행복(1997. 8. 1), pp. 18-20.
- 12) 이선호, “국군의 조직발전 및 변화과정”, 『군사논단』 1998년 봄호·여름호, 제14호 및 15호(한국군사학회, 1998. 7. 1), pp. 11-32.
- 13) 이러한 분류 이외에도 우리 국군의 성장과정은 ① 1950년대 전쟁 및 전후 정비기, ② 1950년대 국방체제정립기, ③ 1970~1980년대 자주국방조성기 및 강화기, ④ 1990년대 국방태세발전 및 통일대비기 등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이은봉, “국민과 함께 해 온 국군 50년 발자취: 건군 50주년을 맞으면서”, 『국방저널』, 1998년 10월호, 통권 제298호(국방부, 1998. 10. 1), pp. 32-36 참조.
- 14) “연혁”, <http://www.mnd.go.kr>(검색일: 2003. 7. 14) 참조.
- 15) 국방군사연구소, 『건군 50년사』, 1998 참조.

의 창설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정부수립과 동시에 국방부가 설치되면서 시작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국군의 창설과정은 ① 민족 스스로 군사단체 조직을 통해 전개한 창군운동 과정, ② 미군정 경비대 창설 및 증편과정, ③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동시 국군의 창설과정 등 3단계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¹⁶⁾

우리나라는 광복후 미군정이 실시되면서 온갖 난관을 극복하고 국군창설을 위한 창군준비를 서둘렀다. 1945년 8월 15일 조국광복과 더불어 지난날의 군 경험을 바탕으로 한 군사단체들이 여럿이 생겼다.¹⁷⁾ 1945년 11월 13일 국방사령부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군대적 성격과 면모를 갖추기 시작한 것은 1946년 1월 15일에 창설된 2만5천명 규모의 남조선 국방경비대였다. 그러다가 1945년 8월 15일 정부수립 및 정부조직법에 의거하여 국방부가 설치되고, 1948년 11월 30일 국군조직법이 제정·공포되었으며, 이듬해인 1949년에 공군과 해병대가 창설되면서 명실상부한 국군의 체계가 갖추어졌지만, 당시 국군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수적으로 5만여 명에 불과했고 장비도 치안유지용이라고 할 수 있는 소형무기뿐이었다.¹⁸⁾

해방후 미군정 당국에서는 일제강압기의 조선총독부 행정기구를 대부분 그대로 인수하였으나 군사면에서는 아무런 공식기구가 없다가 미군정 당국이 1945년 11월 13일 군정법령 제28호를 공포하여 국방사령부(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Defence)를 설치하고 남한의 국방기구를 위한 업무에 착수하게 되었다.¹⁹⁾ 미군정 당국은 1946년 1월 11일 군정청 국방사

16) 한용원, “3·1 독립운동과 국군의 정통성”, 『국방저널』, 1997년 3월호, 통권 제279호(국방부, 1997. 3. 1), p. 22; 한용원, 『창군』(서울: 박영사, 1984) 참조.

17) 조국광복과 더불어 각종 사회단체 및 정당들이 우후죽순처럼 난립하는 가운데, 군사단체도 광복군, 중국군, 만주군, 그리고 일본군 출신의 군사경험자들이 만든 사설단체가 무려 30여개에 이르렀다. “국군의 날 제정 배경과 건군 51주년”, 『국방일보』, 1999년 10월 29일자, 2면.

18) 민병천(1997. 11. 24), p. 14.

19) 국방부, 『국방부사』 제1집, 1954; 이동희, 『한국군사제도론』(서울: 일조각, 1982), p. 216.

령부 내에 ‘남조선 국방경비대’ 임시사무실을 설치하여 모든 준비를 완료한 다음에, 해방후 생긴 각종 군사단체와 해외에서 들어온 각종 군사단체를 해산시키고 동년 1월 15일 국방경비대를 발족시켰다. 동년 2월 7일에는 국방경비대 총사령관에 마아샬(Marshall)을 임명하였다. 전국적으로 의병을 모집하는 한편 연대창설에 노력하여 8개 연대를 창설하는 한편 국방경비사관학교를 창설하였다. 동년 3월 6일에는 군대편성을 미국식으로 개편하였다. 그후 5월에 ‘조선경비대’로 개칭하고 1948년 5월경에는 7개 연대를 증설 5개 여단을 편성하였다. 이 해에 간부의 양성을 위하여 미국에 유학생을 파견하고 3개의 훈련학교와 7개의 기술학교를 세웠다. 1948년 4월에 제주도 공산반란사건이 일어나자 조선경비대는 제9연대와 제11연대를 파견, 공산폭도를 진압함으로써 경비대로서 최초의 전투경험을 갖게 되었다.²⁰⁾

드디어 미군정 과정을 거쳐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과 함께 공포된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우리나라 국방부가 행정부의 한 부서로 공식 발족하게 되고, 동년 8월 15일 정부수립과 함께 초대 국방장관이 임명되었다. 정부수립후인 1948년 9월 1일에는 남조선 과도정부 조선경비대에서 대한민국 국군으로 편입되고 1948년 9월 5일에는 육군으로 개편된다.²¹⁾ 구체적인 내부조직은 동년 11월 30일 국군조직법이 공포됨으로써 국방체제를 가지게 된다.²²⁾

여기서 3군체제가 정립된 과정을 살펴보면, 육군의 경우 8개 연대와 1개 독립연대로 1946년 1월 15일 창설을 보게 된 국방경비대가 1948년 9월 5일 15개 연대 5만명 병력으로 늘어난 대한민국 육군으로 개칭되어 성장을 거

20) “국방경비대”, 박영사 편, 『정치학 대사전』, 1980, pp. 197-198; 유흥렬 감수, 『한국사 사전』(서울: 풍문사, 1975), p. 129.

21) 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전쟁사 제1권: 해방과 건군』(서울: 국방부, 1967), pp. 260-261, 263, 266-267, 272, 305; 양병기, “한국 민군관계의 교훈과 과제”, 『21세기 국방개혁의 방향과 과제』(한국정치학회 국방·안보 학술회의 발표논문집, 충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세미나실, 1999. 10. 22), p. 3.

22) 이선호(1998. 7. 1), p. 13.

듬해 나갔다.²³⁾ 해군²⁴⁾은 3군 중에서도 가장 빠른 움직임을 보여 1945년 11월 11일 최초 해병병단이 창설되어 국방경비대 창설과 동시에 해안경비대를 거쳐 1948년 9월 5일 소(小)함정 10척과 3천여명의 병력으로서 정식 해군으로 발족하였고, 공군²⁵⁾은 1949년 10월 1일 1,600명의 병력과 연락기(L-19) 20대로서 육군으로부터 독립, 공군으로 발족함으로써 드디어 국군은 3군체제를 갖추었으나 장비, 병력 등 모든 면에서 미약하였다. 해병대는 1949년 4월 15일 380명의 병력으로 창설을 보았다.²⁶⁾

군 초창기 미 군정의 불편부당주의(不偏不黨主義)에 의해 군내에 잠입한 좌익분자들은 전술한 제주4·3사건(1948. 4. 3)을 비롯하여 여순10·19사건(1948. 10. 19), 대구사건(1948. 11. 2) 등을 일으켰다. 이때 국군은 아직 제대로 정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소탕작전과 선무공작을 병행하였고, 숙군작업을 통해 1948년부터 6·25전쟁 직전까지 4회에 걸쳐 총 1,300명에 달하는 불순분자를 색출하였다. 북한은 6·25를 앞두고 게릴라를 침투시켜 지리산, 오대산, 태백산 지역에서 후방을 교란시켰다. 이에 국군은 공비소탕작전을 전개하였으나, 작전을 다 끝내지 못한 상태에서 6·25전쟁을 맞게 되었다.

이 시기의 국군은 창설기적 특성에 맞게 확장적 건군을 진행하면서 주 임무는 38도선 일대에 침투하는 북한공산당에 대한 방위적 소탕전과 때로는 지방의 반국가세력의 무장 및 폭력사태진압을 하는 일 등이었다.²⁷⁾

23) 육군의 창설과 성장·발전과 관련해서는 김행복, “육군의 창설과 성장·발전”, 『군사논단』, 제14호 및 제15호(1996년 봄·여름호, 1998. 7. 1), pp. 33-4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편, 『건군사』, 2002, p. 34; 육군본부, 『육군발전사』, 1955 참조.

24) 해군본부, 『해군편제사』, 제1권, 1970; 해군본부, 『해군30년사, 1945~1975』, 1978.

25) 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 증보판, 1991; 공군전사편찬위원회, “공군”, 『컬리판 세계백과대사전』, Vol. 2(서울: 서문당, 1981), pp. 387-398; 최명상, “공군의 창설과 성장·발전”, 『군사논단』, 제14호 및 제15호(1996년 봄·여름호, 1998. 7. 1), pp. 53-80 참조.

26) 해병대사령부, 『해병대발전사』, 1961; 전쟁기념사업회, 『전쟁기념관』, 1996. 11, p. 32; 이종학, “건군의 발자취와 군의 국가발전 기여도”, 『국방저널』, 1996년 10월호, 통권 274호(국방부, 1996. 10. 1), pp. 24-29.

27) 민병천(2002. 11. 20), p. 14.

(2) 제2단계: 한국전쟁기(1950~1953)

제2단계는 한국전쟁기 즉 전시확장기이다. 1950년 북한의 6·25남침에서 시작된 3년간의 한국전쟁기로서 국민과 함께 전쟁의 위난을 극복하면서 발전한 시기이다. 국군은 온갖 악조건과 싸우며 건군에 임했지만 충분한 전력을 갖추지 못한 채 역사상 미증유의 동족상잔을 겪어야 했다. 국군은 창설된 지 채 2년도 되지 않아 북한의 기습남침을 받는 시련을 겪었고 국군 장병들은 장비와 병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오직 투철한 군인정신과 멸공투지로서 북한의 침략야욕을 분쇄해야 했다. 6·25전쟁은 창군된 지 얼마 안되는 우리 국군에게는 최악의 상황과 조건에서 잘 훈련된 적과 싸운 최악의 전쟁이었다. 전쟁은 전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국군에게도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련이 아닐 수 없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남침한 당시 한국군은 갖 창설된 8개 사단 정도의 육군과 소규모 전투부대를 가진 해군과 공군을 합쳐 총병력은 10만 정도였으며, 주한미군은 1949년 6월말 이미 철수하고 없었다. 한국전쟁 발발 직전의 군사력 규모를 구체적으로 보면 육군 8개 사단(105mm 야포 91문, 장갑차 27대), 해군경비정 28척, 공군항공기 22대에 총병력은 10만5천명에 불과하였다.²⁸⁾

한편 북한 인민군은 19만 8천명의 병력과 54대의 장갑차, 242대의 전차, 야포 552문, 30척의 경비정과 211대의 항공기 등 우리 군보다 우리보다 월등히 우세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북한 인민군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38도선 전역에 걸쳐 40대의 T-34 전차를 앞세우고 남침을 개시했다. 한국군은 초전에 패배하였으나 미국을 중심으로 유엔군이 참전하게 되어 1950년 9월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 성공으로 인민군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11월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쟁양상은 달라지게 되었다.²⁹⁾

28) 국방군사연구소, 『건군50년사』, 1998; 장준익, 『북한인민군대사』(서울:서문당, 1991), p. 217 참조.

한국전쟁 초기의 국방체제에는 지휘권과 관련해서 두 가지 변화가 초래되었다. 첫째는 서울이 함락되자 수도를 대전으로 옮긴 후 1950년 6월 30일 맥아더 장군의 건의에 따라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로 당시 육군참모총장이던 채병덕 장군을 해임하고 정일권 장군을 육·해·공군 총사령관 겸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함으로써 잠정적으로 통합참모총장형 체제로 바뀌게 되었다.³⁰⁾

둘째, 이승만 대통령이 1950년 7월 14일 당시 미 극동군 사령관 겸 주한 유엔군 사령관인 맥아더 장군에게 “현재의 적대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이라는 전제(前提)하에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유엔군에게 이양하게 되었으며, 동년월 17일 한국내에 있는 미 지상군의 지휘권을 미 제8군사령관에게 위임하게 됨으로써 한국 육군의 작전지휘권은 미 제8군에게 이양되었다.³¹⁾ 이리하여 한국군은 작전지휘권이 해·공군은 유엔군에게, 육군은 미 제8군에게 각각 이양됨에 따라 대통령의 통수권이나 국방장관의 군정·군령 통할권의 집행상 군령분야가 과도기적 국방체제로 바뀌게 된 이래, 평시의 작전통제권만 한국에 환원(1994년 12월 1일부로)된 채 오늘날까지 연장되고 있다.³²⁾

6·25남침으로 한국군은 두 배에 이르는 병력(20만명)과 공격무기(탱크, 비행기, 장거리포)를 보유한 북한공산군에 맞서 싸우게 됨으로써 큰 희생을 하였으나 질과 양적인 면에서 크게 확대·개량될 수 있었다. 북한의 남침으로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전술한 바와 같이, 국군의 지휘체계는 전시체제인 육·해·공군총사령부 체제로 개편되고 3군총사령관 겸 참모총장제도로 전환되었다. 무엇보다도 군대의 증·창설로 각군의 규모가 급팽창되었

29) 국방부, 『한국전쟁사』Ⅰ, 1967; 이종학, “건군의 발자취와 군의 국가발전 기여도”, 『국방저널』, 1996년 10월호, 통권 274호(1996. 10. 1), p. 28.

30) 한기수, 『한국의 국방조직연구』(서울: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 p. 30.

31) 육군본부, 『유엔전쟁사, 낙동강에서 압록강까지』(제1집), 1968, p. 58.

32) 이선호(1998. 7. 1), pp. 19-20.

다.³³⁾ 1951년 9월에는 국군여군단이 창설되었다. 또한 이 기간에 간부교육 기관으로는 1951년 10월 28일에는 육군대학이 창설되고, 육군사관학교가 4년제로 개편되었으며 1952년에는 국군인사체제와 진급방침이 수립되기도 했다.³⁴⁾

유엔군과 함께 조국수호와 자유수호를 위한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어 오늘의 번영을 가능하게 만든 원천이 군에 있는 것이다.³⁵⁾ 한국전쟁을 통해 북한군과 싸우는 가운데서도 우리 국군은 크게 확장되었으며, 한국전쟁을 교훈삼아 각종 신예무기와 장비의 지속적인 도입 및 교육훈련을 통해 발전해 나갔다.³⁶⁾

3년 1개월여에 걸친 한국전쟁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조인으로 일단 휴전상태에 들어가게 되었다. 북한군의 기습남침으로 우리 국군이 창군된 지 얼마 되지 않아 3년간에 걸친 전쟁을 치른 것은 참으로 큰 비극이 아닐 수 없다. 동족상잔의 비극적인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민족적인 염원의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렇기는 해도 결과적으로 국군의 입장에서 보면 전쟁으로 인해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한 계기가 된 것도 사실이다.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 군은 급속히 팽창하게 되었다. 3년간 전투를 통하여 전투경험과 전기의 향상, 훈련과 사기는 '세계 최강의 군대'라는 찬사를 받을 만큼 성장했다.

무엇보다 전쟁의 시련을 통해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우리의 오랜 군사적 전통 즉 조국에 대한 충성심, 왕성한 투지와 공격정신, 복종심과 용기, 필승의 신념과 임전무퇴의 기상, 책임감 등 군인정신을 고취시켰으며, 이것은 비단 전장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발전의 비옥한 토양을 준비하는데 커다란 의의가 있다. 유엔군 사령관 마크 클라크(Mark W. Clark) 장군은 다음과

33) 김행복(1997. 8. 1), p. 19.

34) 대한민국 국방부 전서편찬위원회 편, 『국방사 2』, 1987, pp. 167, 203, 210; 양병기(1991. 10. 22), p. 5.

35) 민병천(2002. 11. 20), p. 15.

36) 전쟁기념사업회(1996. 11), p. 33.

같은 기록을 남겼다.

즉 “한국군사력의 기간은 용감하고 피로할 줄 모르는 보병이었다. 전투원으로서 그들에게 더욱 큰 힘을 주게 될 지식에 의욕을 가지는 동시에 조국을 위하여 싸우고 피 흘리는 대의(大義)를 위해서라면 기쁘게 생명을 바칠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 한국에는 상무적 전통이 있었다. 한국에는 대군을 지휘하여 야전에서 작전이 능숙하도록 훈련을 받은 인원에 있어서는 부족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³⁷⁾

(3) 제3단계: 국방체제 정비기(1953~1971)

제3단계는 국방체제 정비기로서 전후에서 한국이 자주국방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1970년대 초까지의 기간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는 전쟁 중 팽창한 군사력의 축소·정비와 자주국방을 준비한 시기이다. 이 단계는 전쟁 후 국군이 자체 정비를 단행하면서 미군의 지원을 받아 전후 복구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2~1967)과 함께 국군장비 현대화에 중점을 둔 기간이기도 하다.

3년여 전쟁이 무승부로 끝나자, 국토는 초토화 된 채 38도선을 약간 변형한 휴전선으로 양단되고, 남북한 합하여 520여만명(150만명 사망자와 나머지 중상자)의 손실을 입었으며,³⁸⁾ 1천만명 가까운 이산가족이 생겨났다.³⁹⁾ 전쟁 후 국군은 자체 정비를 단행하면서 미군의 지원을 받아 전후 복구작업을 추진하였다. 1953년 10월 1일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었고(1954년 11월 18일부로 발효), 1954년 2월 17일에는 국방부에 합동참모본부가 설치되었으며, 대미의존적 군사력 정비작업이 진척되었다. 한국군은 한미간의 합의에 따라 60만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축 운용하도록

37) 이종학(1996. 10. 1), p. 28.

38) 김학준, 『한국전쟁』(서울: 박영사, 1989), pp. 346-347.

39) 민병천, 『민족통일론』(서울: 고려원, 1988), p. 66.

규모가 조정되었으며, 한미간의 합의에 따라 유엔군사령부의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operational command)가 작전통제(operational control)로 개념이 바뀌고, 이의 유효기간과 조건도 “현재의 적대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서 “유엔군사령부가 한국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동안”으로 바뀌었다.⁴⁰⁾

전후 혼란의 와중에서도 대미협상력을 강화해 전술한 바와 같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전후 안정된 국방에 필요한 전력증강에 관해 양국간에 최선의 합의를 도출해 낸 사실은 주목할만한 일이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한국전쟁 당시 10만명 규모의 국군은⁴¹⁾ 1954년 72만명까지 증강되었다가⁴²⁾ 1958년에 이르러서는 60만명 수준으로 병력을 유지하게 되었다. 1955년 7월 1일에는 주요부대 직제가 대통령령으로 법제화되었고, 1956년 9월 14일 국무회의에서는 ‘국군의 날’ 제정에 관한 안건을 상정, 이전까지 각각 실시해오던 육·해·공군 및 해병대 기념일을 하나로 통합하여 1950년 인천상륙작전과 반격작전으로 우리국군이 서울을 수복(1950. 9. 28)한 후 남북분단의 상징이었던 38선을 돌파한 날인 10월 1일로 결정했다.⁴³⁾

그후 4·19(1960)와 5·16(1961)이라는 정치적 격변기를 겪으면서 군은 꾸준히 체제의 재정비 및 강화에 진력하였다. 1961년 6월 1일에는 학생군사훈련이 실시되었고 1963년 2월 20일에는 학군장교(ROTC)가 최초로 임관되었다. 1961년 12월 31일에는 국방연구원이 국방대학원으로 개칭되었다. 1961년 6월 21일 주월남공화국 한국군사원조단이 설치되었고, 1964년 9월 11일 월남에 한국군을 파견함으로써 사상 처음으로 해외파병을 실현하게 되었으며, 1965년 9월 29일에는 한국군사원조단이 폐지되고 주월한국군사령부가 설치됨으로서 본격적인 파병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월남파병은 우리군이 또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입지를 높여 준 절호의 기회였고 한국이

40) 김용구, 『한미 군사지휘권 관계의 어제와 오늘』(합참전략기획본부, 1993), p. 19.

41) 국방군사연구소(1998) 참조.

42) 양병기, “한국군의 사명과 민·군관계”, 『군사논단』 1998년 봄호·여름호, 제14호 및 15호(한국군사학회, 1998. 7. 1), p. 164.

43) “국군의 날 제정 배경과 건군 51주년”, 『국방일보』, 1999년 10월 29일자, 2면.

세계로 진출하는 기폭제 역할을 하기도 했다.

월남전⁴⁴⁾ 파병과 관련하여 한국방위체제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⁴⁵⁾ 첫째, 월남전 참전을 위해 파견된 주월한국군은 유엔군 사령관의 작전통제에서 벗어나게 됨으로써 주월한국군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통수권 행사 및 국방장관의 지휘·감독권이 직접 미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이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합동기동부대형 통합군을 월남에 배치, 운용하게 되었다. 월남파병은 한국전쟁시와 마찬가지로 한·미군이 연합작전을 수행하게 됨으로써 1971년 12월 9일 귀국시까지 한국군은 전술전기의 연마와 실전경험의 축적을 통한 군사력 신장발전과 한미군사협력관계 증진에 크게 기여하였다. 셋째, 파월 기간 중 군사력 약점을 틈타 북한의 도발이 격화됨에 따라 이에 대응코자 1968년 4월에 향토예비군을 창설하게 됨으로써 민·관·군 합동의 총력전 체제를 갖추게 된 것이다.

국군의 월남전 파병(1964. 9~1971. 12)과 향토예비군의 창설(1968. 4. 1)과 더불어 우리 군은 성장의 새 계기를 맞게 되었고 방위산업이 육성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1968년 1월 21일 북한무장공비의 청와대기습사건이 있는 뒤부터 대간첩대책본부가 설치(1968. 2. 1)되었고, 또한 한국은 ‘자주국방’을 내세워 250만명의 예비전력과 60만명의 현역을 갖기에 이르렀다. 1970년 8월 6일에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창설되어 방위산업증강에 착수하게 되었고, 동년 8월 27일에는 병무청이 창설되었으며, 동년 9월 1일에는 후암동에서 용산으로 국방부청사가 이전되기도 했다.

이 기간 동안 국군은 6·25전쟁의 교훈에 따라 부대를 개편해 나갔다.

44) 국군은 자유월남을 위하여 1965~1971년에 걸쳐 연인원 31만2천8백53명의 병력을 파견하여 연합국 일원으로 참전하였다. 미국은 월남전에서 5천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경비를 지출하고도 미군 전사자 6만여명, 전상자 31만여명이라는 커다란 희생을 냈다. 월남인의 사상자는 무려 500여 만명이라는 커다란 희생을 냈다. 우리 국군의 희생도 적지 않다. 전사자는 4,960명 외에 많은 전상자와 3만여명이 지금도 고엽제 후유증으로 고생하며 살아가고 있다. 박경석, “건군 반세기 국군의 역사적 의의,” 『군사논단』, 1998년 신년겨울호, 통권 제13호(한국군사학회, 1998. 1. 1), p. 45.

45) 이선호, 『국방행정론』(서울: 고려원, 1983), p. 371.

이에 육군은 최초 전방작전, 후방지원, 교육훈련체제인 1군사령부, 2군사령부, 교육총본부 체제를 유지하다가 그 후 감군정책, 군수지원체제 정립, 교육훈련체제의 개선에 따라 교육총본부를 해체하고 1·2군 및 군수지원사령부 체제로 바꾸었다. 해군과 공군도 한국함대사령부와 F-86전투기 도입 및 전투비행단 창설을 통해 현대적 군으로 기반을 다져 나갔다.

이와 함께 한미군사협력관계도 발전했다. 1968년 5월 27일에는 한미연례 국방각료회의(제1차)가 개최되었고 1971년 2월 6일에는 한미연례국방각료회의를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으로 개칭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휴전 이후 한국군의 성장이 가속적일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1955~1960년의 기간동안 한국군은 총 군사비의 80%를 미국원조에 의존했었다. 그 이후에도 1968년까지 월남 파병에 대한 반대급부형식으로 대체로 같은 수준의 군사원조를 미국으로부터 받아왔다.⁴⁶⁾ 휴전 이후 1957년부터 1972년까지 한국군의 증강을 위한 미국의 무상군원은 매년 최고 4억6천만 달러에서 최저 2억1천만 달러까지 주어짐으로써 국방재원의 절반 이상을 충당하였다.⁴⁷⁾

(4) 제4단계: 자주국방기(1972~1989)

제4단계는 자주국방을 구체적으로 지향·추진하기 시작한 1972년 최초로 국방목표를 설정한 이래 1980년대 말까지의 자주국방 지향기를 말한다. 이 단계 전까지는 주로 미국 일변도 군사정책이었으나 이 단계에 진입하면서 이러한 미국 일변도 정책에서 다변화정책으로 발전을 도모하는 움직임이 강력하게 추진되면서 우리 군은 자주국방을 지향하게 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70년대 초부터 닉슨 독트린 선언(1970. 2. 18)과

46) 하영선, “한미군사관계”, 구영록 외, 『한국과 미국』(서울: 박영사, 1983), pp. 196-197; 김호진, 『한국정치체제론』, 수정7판(서울: 박영사, 1999), p. 363.

47) 이선호(1998. 7.1), p. 23.

미·소 데탕트에 이어 미·중의 화해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주한미군 철수와 대한(對韓)군사원조 중단, 그리고 주월한국군 철수 등이 한미 간의 주요현안으로 부각되고 자주국방이 국방정책의 기본목표가 나오게 된다. 우리 군은 1972년 12월 29일 최초로 국방목표를 설정, 국방정책·군사전략의 수립방향을 명문화하고 자주국방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어서 1973년 2월 19일 박정희 대통령은 “을지연습 '73” 상황을 시찰하기 위한 국방부 연습장 순시에서 “자주국방을 위한 독자적인 군사전략을 수립하고 전력증강계획을 발전시키도록 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에 합동참모본부가 1973년 7월 “합동기본군사전략”을 작성하고, 각군에 군장비 현대화계획 작성지침을 하달하였고, 각군의 계획안을 종합한 후 “국방 8개년 계획(1974~1981)”안을 수립하여 1974년 2월 25일 대통령의 재가를 받음으로써 최초의 자주적인 방위력개선 계획이 확정되었다.⁴⁸⁾ 이른바 제1차 울곡사업(1974~81)을 적극 추진하게 된다.

그후 1975년 4월 30일 월남이 패망하고 인도차이나 반도가 적화(赤化)되자 이에 자극을 받아 민방위대가 창설(1975. 9. 22)되고 효율적인 전력증강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같은 해에 방위세법도 제정되었다. 국방대비태세 완비와 함께 한미연합방위태세도 강화하기 위해 1976년부터는 ‘팀스피리트’ 훈련을 그리고 1978년 11월 7일에는 한미연합사령부를 창설하였다. 또한 1977년 자주국방의 핵심사업인 방위산업육성을 위한 ‘방위산업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제정되었고, 우리 군은 이를 기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국방과학연구소를 설립하였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소화기로부터 해군 전투함에 이르기까지 각종무기를 개발하게 되고 육·해·공군의 전력증강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후 1983년 국방기획관리제도가 적용 시행되고, 1987년 3월 1일에는 한국국방연구원이 설립되었으며, 1987년 11월 1일에는 지난 1973년 10월 10일 해군에 통합된 해병대 사령부가 재창설되었다. 1980년대에도 미얀마 아

48)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백서 1996~1997』, 1996. 10. 1, pp. 88-89.

웅산폭탄테러사건(1983. 10. 9)과 대한항공858기 폭파사건(1987. 11. 29) 등 북한의 도발 속에서, 국방부는 북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한 전력 격차를 좁히기 위해 군사전략 개념의 수정, 군사대비태세의 강화, 제2차 울곡사업(1982~86) 등을 통해 자주국방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였다. 이 시기에 한국군은 방어장비는 물론이고 공격무기를 자체 생산하여 보유함으로써 자주국방의 물적 토대인 '자조적 방위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5) 제5단계: 국방태세 발전기(1990~현재)

이 단계는 합동군체가 실시된 1990년대 초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으로 자주국방성취와 세계화를 지향한 국방태세 발전기이다.⁴⁹⁾ 그동안 우리의 자주국방노력과 1990년 전후의 사회주의권 대변혁에 따른 단일다극체제(uni-multipolar system) 속에서 세계화(globalization)·평화유지활동(PKO) 등과의 조화를 모색해 온 국방태세 발전기라고 할 수 있다. 이 단계는 한미군사공조 속에서 세계평화유지활동은 물론 다른 한편으로는 대북 및 대주변국에 대한 억제력 향상을 위해 지식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자주적인 첨단정예군 양성을 위해 가일층 노력을 기울여온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우리 군의 국방정책 수립·집행에 있어서도 장족의 발전을 거듭해 왔다. 건군 이후 1960년대까지 1년 단위의 시책을 시행해 왔으나 1970년대를 거쳐 국방목표를 설정하고 5~10년 단위의 국방 중·장기정책을 수립했는가 하면 현재는 국가전략적 수준에서 국방정책기획서를 입안하는 단계까지 발전했다.

우리 군은 1990년대에 들어 북한에 비해 우세한 국력을 바탕으로 한국적 전략·전술을 발전시키고 고도의 전비태세로 전쟁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군사전략 개념을 새롭게 정립했다. 1990년 10월 1일 818계획에 따라 합동

49) 김행복(1997. 8. 1), p. 19.

참모본부를 창설하고(합동군제), 동년 11월 1일에는 국군통신사령부가 창설되는 등 통합전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군 구조 및 방위력 개선, 국방 정보화, 무기체계 연구개발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 군은 1991년 걸프전에 다국적군의 일원으로 국군의료지원단과 공군수송단을 파견한 이래 분쟁지역에서의 평화유지활동을 계속 지원해 왔다.⁵⁰⁾ 국방의 자주화와 관련해서는 특히 한국전쟁 이후 이제까지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해왔던 평시 작전통제권이 1994년 12월 1일 한국군에 환원됨으로써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군은 각군 본부의 계통대 이전에 이어 3군대학의 자운대 이전으로 작전지휘본부의 생존성과 육·해·공군 상호간의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한 통합전력의 발휘 및 그것을 위한 교육의 향상을 기하게 하였다. 또한 2000년 1월 6일에는 통합 국방대학교를 창설했고, 동년 9월 1일에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가 창설(대통령령 제16958호에 의거하여)되었으며, 그 후 2002년 2월 20일에는 국군 화생방사령부가 창설되었다(대통령령 제17494호에 의거하여). 또한 2002년 4월 19일에는 차기전투기로 F-15K가 선정 발표되었고, 동년 7월 24일에는 해군 KDX-III사업이 최종 확정됨으로써 우리도 머지 않아 이지스함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약 69만명에 이르는 병력과 고성능의 현대장비를 갖추고 간부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막강국군이 된 것이다. 제1차 울곡사업(1974~81)과 제2차 울곡사업(1982~86)은 전력정비사업(1987~95)으로 개칭 추진되었고, 전력정비사업을 통해 전차, 장갑차, 자주포의 양산 및 헬기, 잠수함 F-16전투기 등의 기술도입 및 생산이 이루어졌으며, 그 후 1996년 1월부터는 ‘방위력개선사업’으로 명칭이 변경, 추진되어 왔다.⁵¹⁾

50) 1993년에는 평화유지활동(PKO) 상륙수부대를 소말리아에, 1994년 9월 6일에는 평화유지활동(PKO) 의료지원단을 서부사하라에, 1996년 4월 16일에는 평화유지활동 공병대대를 앙골라에, 그리고 1999년 10월 23일에는 평화유지활동 상륙수부대를 동티모르에, 그리고 2002년 2월 27일에는 미 대테러전쟁지원 ‘동의부대’를 각각 파병한 바 있다.

51)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백서 1996~1997』, 1996. 10. 1, p. 89.

이러한 방위력개선사업을 통해 육군은 전투의 효율성과 기동성이 향상된 전력구조로, 해군은 수상·수중·공중전력의 입체전력 수행주도로, 공군은 KFP사업의 추진과 함께 고성능 신군사전력과 현대전에 대한 적응성이 향상되었으며, 더불어 육·해·공군의 통합전력 발휘 및 균형발전을 보장하는 군구조의 개선이 추구되었다.⁵²⁾ 그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 들어서도 국방부는 ‘자주적 방위역량의 기반구축’을 목표로 국방중기계획을 꾸준히 추진함과 동시에 국제평화와 다자안보를 위한 노력도 함께 전개해 왔다.⁵³⁾

반세기가 훨씬 지난 국군발전사가 말해주는 큰 특징은 무엇보다 전쟁수행능력 측면에서 6·25전쟁 당시의 재래전 형태로부터 미군의 도움에서 아직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오늘날 지휘통제체제(C⁴I: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Computer & Intelligence)를 골간으로 하는 첨단정보기술군에 의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종래 고지쟁탈전과 같은 전통적인 재래전에 치중하던 작전형태에서 한미연합전력과 육·해·공을 통합하는 입체전으로 발전, 고도의 전투력을 발휘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한미연합방위체제는 한반도의 평화에 절대적인 역할을 해왔고, 이러한 안보체제 아래 우리 군이 자주적 역량을 크게 향상시켜 온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시사해 주고 있다.

군사외교적으로는 대미일변도의 제한된 군사교류협력 차원에서 주변국과도 군사외교의 확대를 모색해 왔으며, 걸프전 이후에는 국제평화유지군으로서 활동을 전개해 명실상부한 지역군에서 국제군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2000년 9월 25~26일에는 남북관계사에 있어서 처음으로 남북국방장관회담이 열렸고, 2002년 4월 20일에는 한일국방장관회담이 개최되었고, 2002년 5월 8일에는 중국 군함사상 최초 한국방문이 이루어지

52) 김행복(1997. 8. 1), pp. 19-20.

53)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백서』, 1999. 10. 1, p. 103.

기도 했으며, 동년 12월 21일에는 한러 군사교류 양해각서가 체결되기도 했다. 또한 동년 11월 10~16일에는 우리의 국방장관이 러·일을 공식 방문하기도 했다.⁵⁴⁾ 지난 2002년 4월 20일에는 한일국방장관 회담이 처음으로 열리기도 했다.

이처럼 오늘날 국제군으로 성장한 국군은 외형상 병력면에서 중국, 러시아, 미국, 인도, 북한에 이어 세계 6위의 군사대국으로 발돋움했으며, 국방비도 세계 10위권 내에 있다.⁵⁵⁾ 그러나 이러한 외형상 상위수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시에 독자적인 작전권을 갖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주변강국과 비교해 볼 때 실질적인 군사력 수준 또한 아직은 열악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3. 한국군의 역할과 향후과제

우리 국군이 창설된 지 반세기가 지났다. 전술한 바와 같이, 반세기를 거치는 동안 우리 군은 너무도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일을 해냈고 발전을 거듭해 왔다. 일본군이 남기고 간 장비와 미국으로부터 받은 M-1소총들, 경장비로 무장된 군대에서 시작되었다. 1946년 1월 15일 25,000명 규모의 조선경비대로 출발한 한국군은 해방 전후 남한 각지에서 발생한 각종 군사적 소요에 대처하였고 민족적 비극인 6·25전쟁을 통해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무력남침을 저지하는데 기여하였다. 6·25전쟁은 우리 민족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군대성장의 계기를 제공하여 군은 단시일내에 60만 대군으로 급속히 성장하였다. 다른 개발 도상국과 유사하게 한국군은 현대적 군대를 육성하기 위해 새로

54) “연혁”, <http://www.mnd.co.kr> 참조.

55)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백서 2000』, 2000. 12. 1, p. 263.

운 군사제도를 도입하고 최신장비와 무기체계 및 현대적인 부대 관리운영 기법을 받아들였다.

6·25전쟁을 겪은 뒤 특히 1970년을 전후로 시작된 ‘자주국방’ 노력으로 이제 우리는 대부분의 무기를 자체 생산할 수 있게 되었고, 주변국과는 아직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나, 이전에 비한다면 막강한 국군으로 성장했다. 바꾸어 말해서 명실공히 선진적인 자주국방이 가능한 국가가 되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우리의 자주국방노력을 통해 보다 과학화되고 전자·정보화되고 정예화된 국군이 된 것은 사실이다. 또한 이러한 발전과정에서 우리 군이 민간발전에 기여한 공로는 결코 적지 않다. 여기서는 군이 민간발전에 기여한 점과 향후 통일안보에 대비한 선진적인 자주국방군으로 거듭나기 위한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군의 민간발전 기여

일찍이 공자(孔子)가 지적한 바와 같이 군사력은 정치력, 경제력과 함께 국력의 3대 요소 중의 하나이며 일반적으로 군대는 전시에는 전쟁수행, 평시에는 전쟁억제 및 사회개발기능을 수행한다. 우리 군은 조국수호의 주기능을 수행하면서도 민간분야 발전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 우리 군은 근대화의 추진기관으로서의 역할⁵⁶⁾과 질서와 명령체계에 의해 국가적 차원의 정책을 신속히 수렴 집행할 수 있는 장점⁵⁷⁾을 살려, 국가사회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앞서가면서 발전의 견인차적 역할을 해왔다. 국군의 성장이 곧 국가사회발전과 연결되어 왔다는 말이다.

돌이켜 보면 지난 반세기여동안 우리 국군은 매우 위대한 업적을 쌓아왔다. 대외적으로는 북한의 무력적화 통일야욕을 분쇄·저지하고 세계평화유

56) 이동희, 『민군관계론』(서울: 일조각, 1990), pp. 331-332.

57) Margaret Peril, "Civilization Appraisal of Military Role in Nigeria," *Armed Forces and Society*, Vol. 2, No. 1(Fall 1975), pp. 39-40.

지에 공헌하며 안으로는 우리 사회와 국민경제발전을 뒷받침하는 훌륭한 역할을 해냈다.⁵⁸⁾ 6·25전쟁으로 전국토가 황폐화되고 마땅한 자원도 없이 국민의 재생의지도 미미할 때에 국군은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는 기적의 연출자가 되었다. 그리고 월남참전을 통하여 국가안보역량을 크게 제고시켰으며, 국가의 근대화 추진기관으로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우리 군이 이 같은 업무와 역할을 다했기에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한강의 기적을 낳았고 88서울올림픽과 2002월드컵의 성공적 개최와 국위선양을 할 수 있었다. 군의 국가 및 민간에 대한 기여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⁵⁹⁾

첫째, 국민교육도장으로서 국민의식과 정신전력 함양에 이바지해 온 것을 들 수 있다.⁶⁰⁾ 특히 1950년대와 1960년대에 걸쳐 군대는 거대한 교육기관의 역할을 했다. 문맹을 퇴치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함은 물론, 일제치하에서 자생적인 조직이나 근대적 정치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한국으로서는 새로운 목표 달성을 위하여 여러 가지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조직할 수 있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인데 군조직이 이 과제를 담당했다. 예컨대 한국군은 국가의식과 민족의식을 불리일으킴으로써 근대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국민의식을 고취하였다. 또한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일제에 대한 독립투쟁과 의병활동의 기본정신이 새로 창설된 한국군에게 계승되었고 이것이 다시 새로운 세대로 전수되어 한국인으로서의 주체의식을 확고히 해주었다.

둘째, 한국군은 군대가 갖는 조직 및 장비를 통해 국토개발을 비롯한 기간산업의 육성에 참여해 왔다. 군대의 임무는 전쟁의 억지 및 방지이며, 만약 이것이 실패하면 전쟁에서의 승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토개발은 부

58) 이은봉(1998. 10. 1), p. 38.

59) 이종학(1996. 10. 1), pp. 28-29; 백종천·온만금·김영호, 『한국의 군대와 사회』(서울: 나남출판, 1994), pp. 40-53 참조.

60) 김행복(1997. 8. 1), p. 20.

차적인 임무지만 군은 그동안 이 분야에도 커다란 공헌을 했다. 예컨대 경부고속도로의 건설은 한국의 근대화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이 건설작업 가운데 가장 힘든 몇 구간을 군이 담당하여 훌륭히 완성했던 것이다.

셋째, 한국군은 한국의 근대화에 가장 필요한 기술인력을 양성·배출하는데 크게 기여해왔다. 군은 초창기부터 한국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능공 및 숙련노동자를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장비조작을 통한 기술습득으로 기술자들이 군에서 배출되었다. 가장 발달된 선진 미국의 행정관리방식을 직수입하여 적용한 군에서 많은 초·중급의 지휘관들이 기획·관리제도의 지식을 배우고 익혔다. 사실 1960년대와 1970년대의 한국전쟁의 행정과 기술은 군에서 배운 것에 의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반기업은 말할 것도 없이 중앙행정관서마저도 이 때까지 구식의 조직과 관리방식에 의존했다. 군에서 습득한 자동차, 장갑차, 통신기 조작과 항공기 조작의 기술들은 제대 후 그대로 한국의 운송계, 기계산업 및 통신산업발전에 응용되었다.

그동안 군은 매년 수십만의 젊은이들을 민간사회에 배출했는데, 이들은 군복무를 통해 여러 가지 기술을 익혔고, 그것은 사회에 어떤 형태로든 연결될 수 있었다. 더구나 공군이나 해군의 경우 그러한 기술을 가르치는 민간부문의 제도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군대에서의 기술이 거의 그대로 사회에 그대로 전이될 수 있었다. 예컨대 대한항공(KAL)과 같은 항공사가 오늘날과 같은 세계적인 항공사로 단시일 내에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공군에서 배출된 조종사, 항법사, 정비사, 통신사 등을 수용했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조선·수송·통신분야 등도 마찬가지였다.

또한 한국군이 고급장교의 훈련·교육·체험 등을 통해 고급경영인력을 양성·배출하였고 이들은 예편 후에 국영기업체, 정계, 공공기관, 민간기업체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온 점을 들 수 있다. 거대한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계획·운용하는 고급경영인의 필요성은 근대화·산업화 사회에 필수 불가결하며, 한 장수가 부대를 편성·지휘하여 전장에서 승리를

추구하는 것이나 사장(회장)이 기업체를 설립·운영하여 시장에서 경쟁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동일한 이치인 까닭이다.⁶¹⁾

군의 도움을 받아왔던 민간부문은 이제 군내외로부터 교육받은 고급두뇌와 지식인 및 기능자들에 의해서 새롭게 도약하고 변신하면서 발전했다. 지금은 민간부문과 비교할 때 근대화·산업화·중진국화 시대와는 달리 군의 발전은 뒤지고 민간부문에 이끌리고 있는 듯하다. 앞서가는 민간부문의 지식과 기능을 받아들여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이것이 순리이기는 하지만 군의 급속한 발전을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그 점이 아쉬운 점이기도 하다.⁶²⁾ 그러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남은 21세기 정보사회에 있어서도 군의 적지 않은 역할이 기대된다.

현 21세기는 고도의 기술정보산업, 지식산업이 주도하는 ‘제3물결’시대이다. 향후 종래의 철이나 중화학공업 중심의 중량문명시대가 가고 경량문명시대가 전개될 전망이다. 분명히 남은 21세기는 문명사적으로 대전환의 세기로서, 단순히 부분적 변화가 아니라 문명구조가 총체적·구조적으로 바뀌게 되는 변화의 세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 문명시대에서는 과학기술력이 선진여부와 강대국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기술혁신과 정보흐름이 너무 빠르고 많기 때문에 두뇌를 쓰는 지식노동자와 그러한 상황에 적응하는 사람만이 생존경쟁에서 살아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이 수행해야 할 역할은 자명해진다. 전술한 바와 같이 군이 신성한 국가방위는 물론, 문맹탈피 및 기술·리더십훈련과 관련해서 군의 교육이 국가와 사회전체에 큰 기여를 했듯이, 입대후 훈련소 교육을 마친 모든 장병이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컴맹에서 벗어나 컴퓨터에 보다 익숙해지고 정보화의 선도적 역군으로서 인터넷을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훈련·지도하고 있는 바, 군의 사회발전을 위한 기여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군은 고도의 현대적 장비를 도입하고 있고 신기술

61) 이종학(1996. 10. 1), pp. 28-29.

62) 민병천(1997. 11·12), p. 15.

개량장비를 생산하고 있어서 ‘기술군’을 지향한다면 군대가 거대한 기술훈련장의 위치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인력과 장비를 직접 민간지원에 투입하는 사업을 확대한다면 민군일체화에 따르는 전력의 상승 작용도 크게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⁶³⁾

(2) 군의 사명과 향후 발전과제

우리나라의 국가목표는 “자유민주주의 이념하에 국가를 보위하고,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여 영구적 독립을 보전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여 복지사회를 실현하며, 국제적 지위를 향상시켜 국위를 선양하고 항구적인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군은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것을 국방목표로 삼고 노력해 왔다.⁶⁴⁾

우리 헌법 제5조 2항은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헌법조항으로 국군의 임무는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토를 방위하는 것을 기본 임무로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또한 군인복무규율 제4조 1항은 “국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국가를 방위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조국의 통일에 이바지함을 그 이념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2항은 “국군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전하고 국토를 방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를 방위한다는 것은 먼저 외부의 무력침략이나 간섭으로부터 국가의

63) 김강녕, “우리 군의 발전과 시대적 과제: 건군 제50주년을 맞으면서”, 『국방저널』, 1998년 10월호, 통권 제298호(국방부), pp. 27-28; 민병천(1997. 11·12), pp. 16-17 참조.

64)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백서 1997~1998』, 1997. 10. 1, pp. 21-22.

주권과 국민, 그리고 국토(육지·영해·영공)를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의 주권은 대외적 독립성을 지키는 것으로 국가의 자유와 독립을 보전하는 것이다. 우리의 헌법 제5조 1항에서는 국제평화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사명을 지키기 위해 우리 군은 그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조국의 광복과 더불어 태동한 우리 국군은 지난 반세기여동안 영욕이 교차하는 험난한 길을 극복하고 선배전우들의 피 흘린 대가로 도약과 발전을 거듭해 이제는 막강한 전력·정신력으로 무장한 막강한 군대로 성장했음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남북 화해와 동북아시아 국제질서의 재편이 이루어지면서 우리 군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적인 동시에 통일을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할 ‘동반자’라는 남북상황은 우리 군의 위상정립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또한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주변4국의 군사혁신 노력과 힘의 교차가 어느 때보다 치열해지고 있는 동북아의 질서 속에서 생존해 나가야 하는 우리는 더욱 강력한 군사력을 요구받고 있다.⁶⁵⁾ 우리 군의 향후 발전과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통일안보를 뒷받침하기 위한 강력한 군이 요구된다. 21세기에는 통일국가 달성이 가시화되면서 한국의 존재의미와 역할이 보다 중요시 될 것으로 예견되는 바, 이러한 통일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통일대비역군으로서의 군사력의 강화가 요구된다. 우리의 통일노력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민족의 화합과 재결합을 통해 민족전체가 잘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우리가 꿈꾸던 민족번영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북한이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무력도발이나 ‘전 한반도 공산화’를 위한 대남혁명을 포기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한반도가 분단된 이래 북한은 6·25남침 이후에도 수많은 도발을 자행하고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등 대남적

65) 국방부 정훈공보관실, “건군 54주년을 맞은 국민의 군대”, 『국방일보』, 2002년 10월 5일자, 4면.

화전략을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통일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고 북한과 대화, 교류협력을 통해 민족적 결합을 추진해야 하는 한편, 동시에 북한과 군사적 대치상황 및 위협이 지속되는 안보태세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⁶⁶⁾

현재 한국군의 전력은 주한미군의 전력을 포함하면 북한 전력과 대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북한의 미사일, 대구경 포와 핵무기·화생무기 등 공세전력에는 많은 취약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보수집력과 장거리 타격장비의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⁶⁷⁾

향후 통일은 무력적화통일이어서는 안되며,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하는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어떠한 형태로 진행되는 통일의 주도는 남쪽에 있고 한국이 갖게 된다는 믿음이 필요하다. 인구(2대 1), 경제력(약 20대 1)면에서나 국제위상에 있어서나 어느 면으로 보더라도 통일은 한국이 중심일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대량살상무기로 무장된 우세한 북한군이 변수가 되고 그에 따라 국군의 통일과정에서의 역할이 달라지게 된다.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유지라는 안보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북한군이 일차적인 대상이 아닐 수 없다. 요컨대 통일과정에서 군이 주요변수라는 것은 결국 군이 통일과정에서 주역을 하게 됨을 뜻한다. 따라서 군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금지인 동시에 과제인 것이다. 어떤 과제는 교육훈련 강화를 통해 그리고 어떤 것은 재정 및 장비의 증강을 통해 통일시대에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⁶⁸⁾

둘째, 주변국의 군사혁신에 대한 대응노력이 요구된다. 정보화시대에는 정보화 마인드와 정보화 기술이 요구된다. 주변국가가 정보화 마인드와 정보화기술로 미래전에 대비한 군사혁신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이

66) 김강녕, 『현대군사문제와 남북한』(서울:형설출판사, 2001. 8. 30), p. 344.

67) 박순찬, “20세기 국군이 걸어온 길”, 『국방일보』, 2001년도 1월 1일자, 6면.

68) 민병천(1997. 11·12), p. 16.

이전의 산업화 마인드 또는 그 기술이나 그 이전의 상태에 머물면서 자국의 안보를 기약할 수는 없는 것이다. 안보란 비교우위성, 대등성 또는 최소 억제성을 지닐 때 의미를 지니는 까닭이다. 국가안보와 관련해서 우리는 현재 북한의 위협뿐만 아니라 미래의 불확실한 위협에도 동시에 대비해야 하는 이중적 과제를 안고 있다. 첨단과학 및 군사기술의 발전과 최근 주변국의 군사혁신 추세를 감안할 때, 주변국의 군사혁신에 따른 미래의 급격한 안보상황변화에 대비하여 한 차원 높은 선진정예군의 육성해 나가야 하며, 또한 우리는 통일 후 주변국의 잠재적 또는 현재적, 군사적 위협에도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대비해 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⁶⁹⁾

이른바 탈냉전시대가 도래했다고는 하지만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군비증강현상은 북한의 경우에도 그대로 나타나 한반도의 긴장도를 오히려 높여주고 있는 실정이다. 미중관계, 일중관계, 남북한관계가 상당기간 우호적 방향으로 돌기 어렵기 때문에 군비증강과 긴장은 오래 지속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예견된다면 필연적으로 한국군의 방향도 탈냉전의 구미적 상황의 모형을 따르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자안보의 틀 조차 수립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주변국의 노선과 궤를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리하여 국방기능의 중요도는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래 전략환경은 예측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전력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전술차원보다는 전략적 차원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정보·기술집약적 군사력의 양성과 무기체계의 시스템화를 통한 조기경보, 지휘통제에 대한 자산확보, 미사일에 대한 방호체계의 개발, 장거리 미사일을 함정에 장착하는 해상타격력 강화, 그리고 공군력은 근접지원뿐만 아니라 전략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⁷⁰⁾ 현

69) 양병기, “정보화시대에 있어서 북한의 군사정책과 한국 국가동원체제의 발전방향”, 『비상대비논총』, 제28집(국무총리비상기획위원회, 2001. 12), pp. 246-250; 김강녕, “미래전에 대비한 군사혁신”, 『군사연구』, 제117집(육군본부, 2001. 9. 29), pp. 195-226 참조.

70) 박순찬(2002. 1. 1), p. 6.

재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국방전반의 효율적 개혁을 위한 군사혁신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군은 국방력을 미래 지향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① 방위태세의 자주화, ② 국방인력의 정예화, ③ 무기체계의 첨단과학화, ④ 운영체계의 합리화, ⑤ 국방의 정보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요컨대 국군은 세계화·정보화시대에 합당한 기술집약형의 군구조와 선진과학군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미국과의 연합방위 및 주변국과의 군사협력외교를 더욱 발전시켜야 하는 과제를 들 수 있다. 휴전 후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상태가 40여 년간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북한의 변함없는 대남전략에 따른 군사도발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군의 대비태세 발전과 더불어 확고한 한·미 안보협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냉전 종식 이후 세계는 지역안보문제의 다자간 해결노력이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나, 동북아 지역은 아직도 여전히 쌍무적 동맹관계에 의존하여 지역안정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우리 군은 오늘날 세계의 단일다극체제(uni-multipolar system)를 주도해 나가는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기본축으로 하면서 주변국들과의 군사우호협력 관계를 점차적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특히 세계적인 탈냉전 이후 우리 군의 군사교류협력의 다변화 추진정책으로 교류협력 대상국의 다양화뿐만 아니라 교류협력 내용의 다양화로 이어지고 있다. 향후 우리는 우리의 안보이익을 더욱 도모하면서 주변국과의 군사외교협력의 발전 및 정부차원의 격상된 다자안보의 모색, 국제적 군비통제와 북한의 전략무기개발 대응책 및 유엔 평화유지활동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⁷¹⁾

한반도의 안보환경은 냉전적·탈냉전적 변화가 병존하는 이중성 때문에 우리는 자주국방과 더불어 안보의 다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1970년대부터 우리의 궁극적 목표가 된 자주국방은 한미동맹과 조화 속에서 점진적·단

71) 김강녕(2001. 8. 30), pp. 458-459.

계적으로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한반도 주변의 불안요인을 해소시켜 다변적(多邊的) 안보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⁷²⁾

4. 결 론

사람은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유지해야 하듯이, 국가도 자국의 방위를 스스로 유지해야 한다는 견지에서 볼 때, 국군의 발전사는 ‘자주적인 선진 국방을 향한 발전사’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본문의 국군의 발전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우리국군의 건군과정은 참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출발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군대적 성격과 면모를 갖추기 시작한 것은 1946년 1월 15일에 창설된 2만5천명 규모의 남조선국방경비대였다. 그러다가 1945년 8월 15일 정부수립 및 정부조직법에 의거하여 국방부가 설치되고, 1948년 11월 30일 국군조직법이 제정·공포되었으며, 이듬해인 1949년에 공군과 해병대가 창설되면서 명실상부한 국군의 체계가 갖추어졌지만, 당시 국군은 수적으로 5만여명에 불과했고 장비도 치안유지용이라고 할 수 있는 소형무기뿐 이었다.

둘째, 우리국군은 전쟁을 통해 적지 않은 희생과 함께 값비싼 교훈을 얻어왔다는 점이다. 6·25전쟁, 베트남전쟁, 기타 국제평화유지활동 등을 통해 쌓은 선배들의 풍부한 실전경험과 전투감각은 우리 군에 있어서 무엇보다 소중한 유산이다. 국군은 온갖 악조건과 싸우며 건군에 임했지만 충분한 전력을 갖추지 못한 채 역사상 미증유의 6·25남침의 동족상잔을 겪어야 했다. 6·25전쟁은 창군된 지 얼마 안되는 우리 국군에게는 최악의 상황과 조건에서 잘 훈련된 적과 싸운 최악의 전쟁이었다. 전쟁은 전국민은

72) 박순찬(2000. 1.1), p. 6.

말할 것도 없고 국군에게도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련이 아닐 수 없었지만 이를 딛고 일어서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후 월남파병은 대통령의 통수권과 국방장관의 지휘권이 행사되는 등 우리 군이 또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입지를 높여 준 절호의 기회였고 한국이 세계로 진출하는 기폭제 역할을 하기도 했다.

셋째, 우리 군은 창군과정부터 현재까지 미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미군정기간 한국의 창군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한국전쟁시 유엔군을 이끌어 북한의 침략을 격퇴하였으며, 1953년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이래 대북 전쟁억제면에서 한국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⁷³⁾ 현재 한미군사안보협력관계에 있어서 주요 현안 문제로는 양국의 연합방위태세유지 및 역할조정·부대이전문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대응문제, 방위비분담문제 등이며 이에 대한 우리의 적절한 대응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군을 발전시킨 군 통수권자를 비롯한 군사지도자들의 자주국방과 세계평화를 향한 거시적인 안목과 의지는 발전의 원동력이 된 점을 들 수 있다. 예컨대 창군계획이나 울곡사업 추진과정 그리고 최근의 미래전에 대비한 군사혁신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향후 선배 참전원로·군 지도자들의 역사적인 전투경험과 훌륭한 지도력은 군사사 연구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방법으로 후배들에게 계승·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역사상 우리 민족은 잦은 외침에 시달려 왔으며 근대에 들어와서는 급기야 일제의 식민지 침탈이라는 민족적 수난을 겪어야 했다. 민족사는 우리에게 국방력 없이는 민족의 자위는 말할 것 없고 생존권마저 위협 당한다는 냉엄한 현실을 일깨워 주었다. 광복과 더불어 그 무엇보다 민족국가를 수립하고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서 호국의 간성인 국군을 창설하고자 진력했던 것은 역사의 거울에 비추어 볼 때 참으로 당연한 귀결이었다. 미군정하에서 경비대로 출발한 국군은 정부가 수립되자 자주독립국가의 미래

73) 김강녕, 『한반도군사안보론』(서울: 인간사랑, 1999), pp. 322-326.

를 내다보면서 명실상부한 국가안보의 보루로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던 것이다.⁷⁴⁾

튼튼한 안보를 통해 국권을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이며, 그동안 우리 군이 이를 중추적으로 담당해 왔다. 한국군은 창설 후 반세기여동안 발전의 뒤 안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도 있었지만, 국가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하며 양과 질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 막강한 국군으로 성장했다. 6·25전쟁과 월남전 등을 겪으면서 강군으로 내실을 다져온 우리 군은 이제 ‘21세기 신 국방시대’를 열며 또 한번의 새로운 도약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국민과 군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제 국가안보와 조국통일 및 세계평화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강한 군으로의 거듭나기 위해서는 군에 대한 국민적 지지·신뢰·협력이 필수적이다. 국방력의 원천은 바로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까닭이다. 국민적 지지·신뢰·협력을 바탕으로 우리 국군이 어려운 시련과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했으며, 전시는 물론 평시에도 민·관·군의 일치단결 정신이 국가안보의 핵심적 요인임을 지난 역사는 잘 말해 주고 있다.

창군이래 우리 군은 조국수호의 주기능을 수행하면서도 민간분야 발전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우리 군은 근대화의 추진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질서와 명령체계에 의해 국가적 차원의 정책을 신속히 수렴·집행할 수 있는 장점을 살려, 국가사회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앞서가면서 발전의 견인차적 역할을 해왔고 오늘날에는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기술과 교육훈련의 장으로서도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①21세기에 통일한국의 실현을 위해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보다 튼튼한 국가안보능력이 요구되고, 또한 ②안보는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성취되지 않는 바, 주변국의 군사혁신에 대한 대응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③맹방인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과의 외교적 협력을 모색해 나가야 하는 큰 과제

74) 하재평, 「군사」 “발간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2002), p. 1.

를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시 말해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도발을 억제하며, 미래의 불확실한 안보환경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남북한 관계개선과 통일한국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튼튼한 국방력 건설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을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의 발전은 21세기의 전쟁 패러다임을 산업화시대의 대량파괴전 양상에서 정보화시대의 정밀타격·정보마비전 양상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미래전의 모습은 걸프전과 코소보전 및 이라크전에서 부분적으로 나타났다. 미래에는 정밀유도무기, 스텔스 운반체제, 센서체계, 컴퓨터와 통신 네트워크 등의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됨에 따라 전장가시화 및 정보공유능력이 발전되고, 전장공간이 기존의 지·해·공 3차원에서 우주와 사이버 공간으로까지 확대되며, 장거리 정밀교전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특히 정보체계를 보호·마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전쟁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1세기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군사 및 비군사를 망라한 제반 안보요소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포괄적 안보체제’의 구축 즉 총력 국가방위태세 구축이 불가피하다. 군은 국가발전에 스스로 동참하여 과학기술발전과 국민교육의 창달에 이바지함은 물론, 환경, 테러, 마약 등 비군사적 안보위협에도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할 과제도 안고 있다.

지금 우리 군은 민족사적 전환기에 건군사에 뿌리를 둔 역사인식을 통해 조국수호의 방패로서의 시대적 소명을 재확인할 때이다. 바야흐로 21세기 첨단지식정보군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장도에서 건군 및 발전과정의 주역들의 역사의식과 불굴의 정신을 되돌아보면서 오늘 우리 군에 부여된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민족숙원의 견인차로서 역사적 책무를 다할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할 것이다.⁷⁵⁾ 더 나아가 세계평화에도 적극 기여해 나가야 한다.

국가와 민족의 생존을 최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국방·안보이다. 어느

75) 백기인, “건군사의 교훈”, 『국방일보』, 2002년 10월 7일자, 2면.

국가가 주변으로부터 침략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방위력마저 발전시키지 못한다면, 그러한 국가는 자주적인 국가로서 생존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역사적 교훈이자 현실이기도 하다. 탈냉전적 시대조류와 ‘화해·협력’의 외양만을 강조하다보면 자칫 소홀히 생각하기 쉬운 것이 국가안보 및 방위이기도 하다. 우리는 ‘강력한 한국’, ‘선진화된 정예군’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길이며, 나아가 조국의 평화통일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열쇠인 것이며, 더 나아가 세계평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인 것이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If you wish peace, prepare for war. -Vegetius)는 격언이 있다. 진정한 평화는 강한 힘이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 튼튼한 국방력은 바로 평화의 기본 전제조건이다. 국가라는 제도가 존재하고 국가간의 갈등이 존속되는 한, 우리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될 화두인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및 더 나아가 동북아와 세계의 안정과 평화의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적 사고와 의지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면서 이를 위한 외교·안보적 노력에 우리 모두 중지(衆智)를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원고투고일 : 2003. 7. 11, 심사완료일 : 2003. 8. 4)

주제어 : 한국군, 국가안보, 한국전쟁, 자주국방, 군사혁신

<ABSTRACT>

An Analysis of the Development of ROK Armed Forces :
Focusing Toward an Historical Perspective

Kim, Kang-Nyeong

For the past fifty-odd years, our military has developed into the armed forces of our people. It has faithfully devoted itself to the basic mission of national defense, and has contributed to the national development and various relief activities in case of national disaster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se and evaluate the development processes, contributions, and future tasks of ROK Armed Forces(hereafter ROK AF). The history of the ROK AF can be divided into five major stages. What it has done at each stage is as follows.

The first development stage is the period of establishment of the armed forces(1945.8~1950.5). On November 13, 1945, with the guidance of the U.S. Military Government the Korea Defense Headquarters was founded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Foundation and the R.O.K. Government Law. The foundation of the South Korea Defense Patrol Squad followed on January 15, 1946. The Defense Headquarters was renamed as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on March 29, 1946.

The second phase in its development can be termed the period of Korean War(1950.6~1953.7). The Korean War broke out on June 25, 1950. The MND transferred its Operational Control Authority to the Commander-in-Chief, UNC on July 14, 1950. The Women's Army Corps was founded on September 6, 1950. The Korea Armistice Agreement was signed on July 27, 1953.

The third development stage is the period of building the defense system(1953. 8~1971). The Joint Staff Council was founded within the MND on February 17, 1954. The staff organization of major military units were legislated into the Presidential Decree on July 1, 1955. The 1st day of Oct. was announced as the R.O.K Military Forces Day on September 21, 1956. The R.O.K. Armed Forces were dispatched to Vietnam on September 11, 1964. The Local Reserved Army Corps was founded on April 1, 1968. The Annual Defense Cabinet Meeting between the R.O.K. and the U.S. was held on May 27, 1968. The National Defense Science Research Center was founded on August 6, 1970.

The fourth development stage is the period of building the self-reliant defense(1972~1989). The National Defense objectives were set up on December 29, 1972. The troops dispatched to Vietnam withdrew on March 23, 1973. The Military Committee Meeting (MCM) between the R.O.K. and the U.S. was first held on July 29, 1978. The R.O.K.-U.S. Combined Headquarters was founded on November 7, 1978. The National Defense Planning Management was adopted(1983~). The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is was founded on March 1, 1987. The Marine Corps Headquarters (that was assigned to the Navy on October 10, 1973) was refounded on November 1, 1987.

The fifth development stage is the period of enhancing the defense posture(1990~present). According to the 818 Plan, the Joint Chiefs of Staff was founded on October 1, 1990. The Defense Command Communication Force was founded on November 1, 1990. After that, the Korean Medical Unit was dispatched to the Gulf War on January 14, 1991. More recently the support corps for the US war on terrorism, 'Dong-ui Corps', was dispatched on February 27, 2002. The 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 Compilation was founded on September 1, 2000. The South-North Defense Ministerial Talks was held in Cheju Island from Sep. 25 to 26, 2000, and the ROK-Japan Defense Ministerial Talks was held on April 20, 2002.

The national goals of the R.O.K. are “to safeguard the nation under free democracy, to preserve permanent independence by attaining the peaceful unification of the fatherland, to become a welfare society by guaranteeing our citizens’ freedom and rights and working toward an equitable prestige and contribute to world peace by improving our international prestige.” Defense objectives of our military, which endorse the national goals, are to “defend the national from eternal military threats and aggression, to support the peaceful unification, to contribute to regional stability, and world peace.”

Following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Korean War broke out on June 25, 1950 because of North Korea wanting to communize the whole peninsula, causing a tragic fratricide. While a military standoff has persisted more than forty years on the Korean peninsula since the armistice, North Korean military provocations have been effectively deterred by ROK’s firm defence posture backed by close security cooperation with the United States.

Today’s global security situation remains complex and mixed: while visible fruits of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have been reaped from the changing security order in the post-Cold War era, unstable situations caused by regional disputes and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constantly haunt the world. Sources of dispute that lay dormant during the Cold War era have surfaced, and new causes for dispute now threaten world security.

Each nation foresees the possibility of future warfare and seeks to improve military technology in order to improve itself with the capability to prepare for war. A reform-oriented, long-term force development is called for in the face of warfare paradigm changes and uncertain security risks in the twenty-first century. We must be able to deter military threats and provocations from the North and build up defense capabilities to cope well with the uncertain security environment of the twenty-first century. Our

military should be also engaged in active external military exchange and cooperation with various nations of the world to help create a more favorable environment for peace and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n parallel with our these efforts.

Key Words : R.O.K. Armed Forces, National Security, Korean War, Self-reliant Defense, Military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K C I